

국무총리 훈령 제 111호에 의거 리 행정조정실

폐지
(82.3.9)

국무총리 지시 제 25호

1975. 12. 23.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연말 연시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경계태세 강화에
관한 지시

1. 연말 연시는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와 계속되는 연초의 연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정신자세가 해이되기 쉬울뿐 아니라 전 공무원은 확고한 근무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보다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추으로써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복괴도발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2. 특히 금년은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신 이념을 국민생활에 깊게 심어 총화단결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등 각종 국제회의를 통한 복괴의 악랄한 대 한국 비방공세를 견제하여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하였는바, 이는 국민총화의 바탕위에서 전 공무원이 많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로 생각되오니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년의 계획된 업무를 끝까지 깨끗이 마무리짓고 유신 제 4차년도의 계획 실현을 위하여 더욱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3. 또한 복괴는 금년 유엔총회에서의 공산측 결의안 통과로 대외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도발양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어떠한 양상의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4. 따라서 이와 사항을 폭넓게 강조 실시하기와 더불어는 물론 산하 기관에도 이를 시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각급 기관의 장은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근무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독려할 것.

2. 전후방의 군사시설은 물론 극제공항, 항만, 공업단지등 국가 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 경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것.

3. 취약지역으로의 간첩침투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비상시 군·경 및 예비군 동원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4. 각종 총기류등 위험물의 불법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하여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사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5.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일·숙직 업무들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발생시 사태수습에 적극 대비토록 하며, 유고서에 대비한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의 점검검과 이의 이행에 대한 확인제를 실시할 것.

6. 동절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미 시달한 국무총리 지시 제 15호(75. 10. 31)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연말연시를 명량하고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지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11-45), 나(1-11)